

선제적 방역 효과

한 장 혁

코미팜 본부장 수의사 / 본지 편집위원



1. 선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의 효과

철새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매년 철새는 찾아오고, 외래성 질병은 매년 발생한다. 이를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그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하다.

그러나, 방역정책자의 의지와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 농장에서의 주의를 기울이면 예년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발생과 피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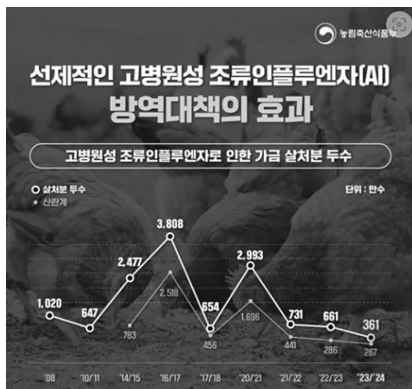
입는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20/21년 시즌에 2,993만 마리의 살처분 숫자를 361만 마리로 줄여서 약 1/9로 줄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2. 코로나19의 교훈과 방역

코로나19 유행 당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여 발생율을 줄였던 것 같이, 농장의 위생조건을 높이고 차단 방역 및 철새가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날아가는 철새가 배설하는 분변의 처리(당연히 마당과 운동장, 사료운반차, 계란 출하차의 바퀴소독)등은 그래도 숙제로 보인다.

3. 그래도 위험한 조류인플루엔자

미국 텍사스 낙농업 종사자가 조류인플



루엔자에 양성 반응을 보여 공중 보건 전문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텍사스, 아이다호, 미시간, 뉴멕시코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소가 잇따라 발견되며 사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텍사스의 한 사람이 최근 젖소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과 관련된 감염인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았다고 보건 당국이 월요일 밝혔다.

AP통신은 텍사스 보건 당국을 인용해 조류독감 감염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보고된 유일한 증상은 눈의 충혈이었다고 보도했다. 연방 보건 당국은 “포유동물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말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수석 부국장인 니라브 샤 박사는 “사람 간 전파의 증거는 없으며 가축의 우유나 고기로 감염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2020년



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수십 개 국가에서 개, 고양이, 스컹크, 곰, 물개, 돌고래 등 더 많은 동물 종에게 퍼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460명 이상이 사망했다. 감염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새로부터 직접 감염됐다(24.04.03 박주현 기자 기사 발췌). 이는 언젠가 조류의 질병이 사람에게, 가축의 질병이 사람에게, 사람의 질병이 동물에게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려했던 일들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단절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축산 현장에 있는 사양가들과 의사들의 노력이 뒤따라야만 된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바이러스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는 닭에서 인간으로, 닭에서 가축으로 오는 사슬을 끊어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양계**